

女性 속옷에 關한 研究

- 16世紀~20世紀(前)를 中心으로 -

이 순자 · 이 순홍*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Women's underwears

- From 16th century to 20th century(the first term) -

Soon-Ja Lee · Soon-Hong Le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Underwear has undertaken the auxiliary role of outwear also. Thus, as outwear has changed forming the characteristic mode in every period, underwear has changed endlessly, so that it may match the form and function of outwear, in accordance with the stream of period.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amined hoop and petticoat which were used for widening the skirt which is female clothes with diverse names in every period, under one name which is farthingale, centering around the West and Korea, from 16th century to 20th century(the first term)

In addition, it examined by comparison the relevancy between to the history and change factor of underwear which was used for swelling the skirt in Korean clothes.

The result to have studied on the history and change factor about the farthingale of West and Korea is as follows: This study found that the silhouette of women's clothing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underwear.

Also The result to compare the underskirt of the West with that of Korea is as follows: They has other character, but in 18th century, being compared the underskirt of the West with that of Korea, for the swelling of skirt, this study found that they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underskirt of the West and Korea.

Key Words : 패팅게일(farthingale), 파니에(Panier), 크리놀린(Crinoline), 베슬(bustle), 무지기(Mujigi), 살창고쟁이(sal-chang Gojangui).

I. 서 론

服飾의 内部에서 美的表現과 무관해 보이는 속옷도 服飾의 조형의지와 관련을 가지며, 개인의 美的慾求는 물론 사회의 倫理觀과 密接한 관계를 갖고 발달 또는 쇠퇴하는 운명을 갖는다.¹⁾

西洋服飾에서 女性 下衣로서 속옷은 人體의 각 부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인공적인 服飾의 실루엣을 창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儒教思想의 관념에 비롯되어 女性의 삶을 절대로 他人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 당시의 습관²⁾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속옷의 출현을 보았다.

各種의 속옷은 外形像의 옷맵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물론, 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되어 있기도 한다.³⁾

本研究의 目的是 西洋의 女性 속옷의 文化에 있어서 16世紀頃부터 20世紀(前)頃에 이르기까지 속옷의 特성을 살피고 그 시대의 流行에 따라 廣意로서 女性 下衣의 속옷들로 體型의 短點을 補整하여 의복의 形態를 유지시키고 그 의복형태에 따른 身分表示와 性的魅力의 과시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그 변화의 歷史를 조사하고, 政治的 이념, 女性的 社會的地位, 理念的 要因과 材質, 결옷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며, 朝鮮時代는 16世紀頃부터 20世紀(前)頃까지 女性 속옷文化에 있어서 女性 下衣로서 속옷에 關한 研究로서, 임란을 거치고 후기 英·正祖代 이후에 이르러서 볼 수 있듯이 치마허리 말기가 저고리 아래로 보일 정도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는 마치 종을 엎어놓은 모양, 또는 항아리 모양을 이루게 된 실루엣(silhouette)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실루엣의 변화에는 그 안에 입었던 속옷의 역할이며, 그러한 실루엣의 연출을 위해 속옷의 변화가 새로운 실루엣을 유도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 여성복 치마속에 실용적인 목적이 외에 아름다운 服飾美의 表現으로 치마의 부풀림을 위해 입었던 속옷에 대한 歷史와 變遷過程을 살펴, 西洋과 우리나라의 속옷文化를 살피고 각각 속옷의 特성을 比較研究 해보고자 하는데 그目的이 있다.

이를 比較함에 있어서, 西洋은 유럽 여러 나라의 16世紀~20世紀(前)頃까지 많은 속옷 중에서 후프

(hoop) 중 유행된 보편적인 실루엣을 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16世紀~20世紀(前)頃까지 女性 속옷을 考察하여 西洋과 우리나라 속옷을 比較하는데 있어서, 全時代를 比較하는 것은 시대적 범위가 광범위함으로 시대적인 특성에 의해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만을 한정하여 比較하고자 한다.

時代的範圍는 16世紀頃부터 20世紀(前)까지이며, 西洋과 우리나라 下衣로서 속옷 文化에 있어서, 西洋服飾史의 時代區分에 의해 고찰하고, 우리나라 is 회화, 출토품에 나타난 겉옷의 外形에 따른 外觀의 時代 유추에 의해 時代順을 엮어 살펴보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文獻資料를 토대로 服飾遺物 사진, 風俗畫, 회화, 초상화,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등을 참고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服飾文化史的 背景

1. 西 洋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16世紀)에 있어서 르네상스 文化는 자연구가, 인간창조의 理想에로의 지향, 古典의 現實性發見, 人間本性의 자유로운 발로, 개인주의의 인식등을 사상의 근원으로 삼았다.

르네상스 최초의 發祥地는 활동적이며 교양있는 企業家와 政治家들의 집합지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였으며 15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⁴⁾

16세기 동안에 스페인은 권력과 영화의 절정을 이뤘고 스페인의 유행을 넓은 지역에서 모방하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 해상로가 발견됨으로써 극동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무역항로가 열렸다.

네델란드 또한 17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16세기 르네상스의 전성기에 미술과 건축에서 현혹과 파상(波狀), 굴곡, 복잡, 화려 무제한으로 표현되는 17세기 바로크 스타일이 생겨났다.

17세기말에는 「mode는 프랑스에서」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모드의 세력진전은 눈부시었다.

또 新興海運國인 네델란드는 스페인의 화려하고

技巧的인 貴族風服裝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市民風의 服飾으로 近代 服裝史上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절대 왕제인 프랑스의 궁전에서 확립되었다. 프랑스 모드는 이렇게 해서 바로크 風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유럽 전체를 휩쓸었다.⁵⁾

로코코(Rococo) 시대(18世紀)에 있어서는 로코코 樣式時代와 프랑스革命期 및 總裁政府時代로 나눌 수 있다. 루이 14세의 死後(1715)부터 프랑스 혁명 까지(1789) 유럽미술양식을 로코코 樣式이라 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⁶⁾

루이 14세時代(1643-1715년)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 豪華스러운 궁정문화의 時代로서 아름다운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살롱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중앙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 문화도 접하게 되어 서유럽도 큰 영향을 받았다.

18세기말의 프랑스에서의 이 엄청난 변혁은 정치에서 만큼이나 결정적인 변화를 복식에도 가져왔다.⁷⁾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 1789-1815년) 시대에 있어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 1세(Napoleon Bonaparte, 1769-1821년)의 第一帝政까지 30년간은 服飾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貴族風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던 시기이다.

市民社會는 권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自然的인 感情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것에 생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장식된 화려함보다는 자연적인 모습을 중요시 하였으며, 당시 이상적인 모델은 고대 그리스 服飾이었다.

따라서 男子服裝에 있어서의 簡素化는 긴 바지의 着用과 色彩 등으로 나타나 이제까지의 輕視되어온 검은색은 教會服과 禮服 그리고 公式服의 색으로 승격하여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나폴레옹 시대에까지 유행되었다. 女子服에 있어서는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나 近世 初期 이후 가는 胸, 부풀린 스커트, 높은 머리 등의 귀족적인 衣裳形式이 차츰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服裝은 아직 남아 있는 貴族衣裳과 각축을 벌이면서 1792년부터 1793

년경 服飾의 경향은 새로운 古典風과 貴族風이 남자복에서는 對立形으로, 여자복에서는 混合形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貴族文化의 殘影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魔刑(1793년)과 함께 사라지고 귀족, 평민 모두가 검소한 옷차림을 하였으나, 1804년 5월 나폴레옹이 皇帝의 자리에 오른 이후 프랑스 제정은 다시 화려하고 호화로운 生活이 전개되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국력을伸長하고 국내적으로는 가톨릭의 國教化나 法典의 완성 등 국가부흥에 힘쓰는 한편 織物產業을 複勵하여 자카드 織機(jacquard)를 발명하여 紡織物의 제조가 기계 생산화 되었다.

이와 같이 織物工業을 배경으로 하는 經濟力의 상승은 귀족적 취향의 부활과 함께 服飾에 호화로움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호화스러운 織物로 身體의 곡선을 드러내는 실루엣이 프랑스를 中心으로 각국에서 성행하는데 이를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이라 한다.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1815-1848년) 시대에 있어서 浪漫主義 時代는 나폴레옹 帝國이 붕괴된 1815년부터 2月革命이 일어난 1848년 2월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각국에서 反動勢力이 증강한 時期이다.

衣裳樣式은 革命 以前의 貴族衣裳을 연상시키는 실루엣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1848-1870년) 시대에 있어서 부르조아 王政의 정책은 경제의 不調和를 초래하여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다.

1848년 12월 전농민의 지지에 의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루이 나폴레옹(Louis Napoleon: 나폴레옹 1세의 조카, 1808-1873년)이 선출되었고, 이어 그는 1852년 2월에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3세라고 명명되었다.

대부르주아들은 과거 구귀족들의 영화를 재개하려 했고, 자연히 복장도 그들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1세기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스커트 베寝室인 크리놀린이 다시 나타나 여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스커트를 최대한 부풀린 형태를 크리놀린 스타일이라 한다.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1870-1890년) 시대에

있어서 프랑스 제2제정의 붕괴와 더불어 복식문화사에서도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렸다. 부르주아 사회를 구가하던 화려한 크리놀린 스타일은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19세기말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직물의 기술적 혁신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체 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어서 19세기말에 나타난 예술양식 중의 하나인 아르뉴보(Art Nouveau)는 이 당시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의상 등 조형예술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⁸⁾

아르데코 스타일(Art Deco style, 1907-1930년) 시대에 있어서 아르데코는 아르뉴보가 최고의 절정기를 끌내려고 하는 전환점에서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르데코는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했다. 이러한 아르데코의 의상이 실현된 것은 1910년대로, 아르 테코의 주요색상인 강렬하고 밝은 색조는 미술의 표현양식인 야수주의(Fauvism)와 러시아 발레로 더욱 확산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우리나라

朝鮮王朝는 중국 明나라에 대하여 事大主義를 택하고 儒教를 政治的 理念으로 삼았다.

朝鮮 初 성종 5년 (1474) 《國朝五禮儀》의 편찬으로 의례복식이 법제화되었고, 곧이어 《經國大典》의 편찬으로 백관들의 복식 제도가 재정비되었다.

一般 女服의 경우, 그 主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저고리」, 「치마」인데, 그 길이나 線이 조금씩 時代에 따라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構造는 國初의 國俗을 벗어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國末까지 그대로 傳承되었다.⁹⁾

그러면서도 中國服制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바, 儀式이나 婚禮에 착용하던 翠衣, 활옷, 圓衫, 唐衣등의 禮服과 禮服치마인 스란치마, 대란치마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여성들의 복식미가 下體를 부풀려 그 위에 치마를 입은 실루엣이 마치 종을 엎어놓은 듯 하였

다. 여기에 걸치마의 페티코트 역할을 한 것이 속옷이었기 때문에 조선조의 속옷文化는 차원 높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女袴에서 우리 민족복의 裙制를 전수해 왔다고 하는데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¹⁰⁾

朝鮮時代 後期가 되면서 속옷의 구분이나 명칭이 다양해졌다. 下體에 입던 속옷을 形態別로 區分해 보면 바지류에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바지가 있으며, 치마류에 무지기, 대습치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치마를 부풀리는 기능을 가졌던 속옷은 주로 上流階層에서 사용했던 너른바지와 무지기, 대습치마 였으며, 一般庶民들은 풍성한 바지를 입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속옷들은 조선왕조 후기에 이어 開化期(1876-1909)와 民族受難期(1910-1945)에 간소화되었다.

III. 속옷의 定義와 機能 및 種類

1. 定 義

속옷이란 上衣(웃옷, 걸옷)속에 빙쳐입는 의복류의 총칭¹¹⁾으로, 착용목적에 따라서 화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 하는 補整衣와, 란제리(lingerie)라고 부르는 장식속옷, 그밖에 속옷류(underwear) 등의 3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2. 속옷의 機能¹²⁾

1) 추위로부터의 身體保護. 2) 의복의 形態維持. 3) 신체의 清潔維持. 4) 性的 表現. 5) 계층 표시의 방법 등의 機能이 있다.

3. 種 類

(西洋)

- 1) 슈미즈(Chemise) 2) 콜셋(Corset) 3) 후프(Hoop)
 - ① 파팅겔(farthingale)(英, Spain: vertugo, 佛:vertugadin) ② 파니에(panier) ③ 크리놀린(crinoline) ④ 버슬(bustle) 4) 페티코트(petticoat) 5) 드로워즈, 팬탈룬즈(Drawers Pantaloons) 6) 混

合式 속옷 등이 있다.

(우리나라)

- 1) 무지기 2) 대습치마 3) 다리속곳 4) 속속곳
(内襯衣) 5) 바지, 고쟁이 6) 단속곳(單襯衣) 7) 너
른바지 8) 살창고쟁이 등이 있다.

IV. 속옷의 起原 및 變遷過程

1. 起原 및 變遷過程

(西洋)

속옷의 歷史는 곁옷보다는 習이나 西洋에서는 古代의 크레타時代에 이어 中世부터 스커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속옷으로 베임대 역할을 하는 패팅계 일類와 페티코트가 여러 가지 형태로 形成, 變遷되어 꾸준히 발달되어 왔다.

女性의 스커트를 誇張되게 보이기 위한 속옷에는 철사, 고래뼈, 그 외의 재료로 만든 「허리 받침 또는 허리테」形式이 패팅계일類와 스커트의 실루엣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장식적인 역할도 겸하는 페티코트¹³⁾가 있으며, 時代에 따라 形態와 名稱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과감하게 마음껏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15세기 후반 스페인 귀족의 衣裳에서 본격화 되었다.

르네상스 服飾의 특징은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여 인간의 육체미를 변형시켜 가면서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므로, 여자들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베르튀가댕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스커트의 부피를 크게 늘려 과장된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alss silhouette)을 이루었으며, 16세기 말에는 체형을 완전히 무시한 급격한 增大와 縮小의 衣服型이 되었다.

바로크(Baroque)樣式이 지배적이었던 17세기에는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氣風을 바탕으로 하여¹⁴⁾ 여성의 복장에서는 誇大服飾이 오히려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주어 衣裳을 돋보이게 하였다. 17세기初에는 스페인의 비활동적이고 귀족적인 圓錐形의 스커트가 그대로 유행하였다.

1680년대가 되어 영덩이 뒷 부분만을 부풀리기 위한 도구로써 「cul de paris」라는 흉에 붙이는 허리 받침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나온 베슬 스타일은 그 후 다른 벨형과 함께 250년간 패션계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19세기말에는 유럽의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즐겼다.

1715년부터 로코코(Rococo)式의 섬세하고 여성적인 曲線과 過多하게 장식된 花려한 衣裳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는 허리와 더불어 스커트 부분을 강조하여 增大시켰는데 이때 스커트를 넓히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파니에(pantier)였다.

이러한 로코코 衣裳의 특징은 1780년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심각한 혁명의 분위기 가운데 좀더 실제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자 파니에의 誇張된 부풀림은 점점 축소되고 그 대신 동작에 편리하도록 부풀림의 위치를 뒤쪽을 집중시켰다.

1820년대의 페티코트는 스커트에 조끼가 붙어있는 형태로 솜을 넣고 누볐거나 여러 겹의 형跤으로 만들어 端에는 lace나 frill을 달았고, 스커트의 아랫도련이 퍼지게 하기 위해 치마도련 끝에서 안쪽으로 6-8인치 들어간 위치에 딱딱한 코드를 두른 編織物의 것이었다.¹⁵⁾ 이와 같이 스커트가 넓어지게 되자 1845년 경부터 부풀리는 道具로 크리놀린이라는 베임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850년 경부터는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1850년대 초기에는 밀단이 많이 퍼지지 않은 벨型에 가까웠으나 후기에는 밀단이 새장처럼 둥글게 최대로 퍼진 형태였으며, 1860년대에는 앞은 납작하고 양옆과 뒤가 둥글게 부푼 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1860년 경부터는 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鐵裝飾으로만 공들여 조립한 것이 계속 이용되었다.

1870년대 末에는 스커트가 좁아지고 스커트의 드레이프가 뒤로 모아져 흉을 강조한 bustle style로 변화하게 되었다. 1870年代, 스커트의 불륨이 축소되자 crinoline 裝飾은 없어졌지만 그 후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나타나서 스커트 뒤를 불룩하게 만들었다.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러 가지 베임대가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機具를 사용한 부풀림보다는 안에 입은 페티코트에 의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표현하였으며, 페티코트의 크기나 數도 많이 감소되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유행했던 S-silhouette 이 나타났다. 세련된 姿態를 만드는데에 crepe, chiffon등의 絹織物 또는 부드럽고 薄은 毛織物을 사용하였다. 1906년부터는 直線的인 straight 실루엣의 날씬한 모양으로 변화되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1908년의 hobble skirt였다. 1914년에서 1929년 사이에 waist petticoat가 유행되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감각적인 아르누보(artnouveau)양식이 나타났다. 프랑스와 벨기에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다. 제1차세계대전후, 1920년대가 되어 스커트단이 무릎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매력 포인트(Point)가 등으로 옮겨져 등을 노출시키는 훌쭉하고 긴 스타일의 이브닝 드레스(evening dress)가 나왔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인 성종 5년(1474) 《國朝五禮儀》의 편찬으로 의해 복식이 법제화되었고, 곧이어 《經國大典》의 편찬으로 백관들의 복식제도가 재정비되었다. 상층 계급에서는 남녀의 正服으로 중국 明의 服制를 따랐으나 그 안에 받쳐입거나 평상시에 착용하는 의복들은 전통적인 國俗의 것을 사용했던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속옷이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용도 외에도 신체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태도와 현상은 여성을 사회로부터 유리시키려 했던 朝鮮社會의 儒教思想에 근거한 여성의 貞淑함과도 관계가 깊다.¹⁶⁾

이렇듯 조선시대 女人의 속옷은 女人的 신체를 은폐하기 위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속옷이 필요하였다. 그러다가 外形相의 옷맵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時代 文獻에 나오는 女子 바지 중에 褙裙은 일정 계급 이상에서만 입을 수 있었던 독특한 바지로서, 조선 전기뿐 아니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류 계급의 부녀자들이 승마 때나 乘轎시에 착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기록 중 태종 12년(1412) 6月 丁卯 일 기사에 '襠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褙裙은 1412년을 비롯하여 1900년대에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前期의 일반 여성 복식은 고려말기의 복식 구조를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찾아볼 수 있는 가장 上代의 착장모습은 1589年 作品인 甘露王圖에 등장한 女子 공양자像에서이다. 禮服을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女人們의 복장은 치마와 赤古里를 착용한 傳統服飾차림이며 따라서 이러한 形態의 外觀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속곳 등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16世紀의 原州元氏의 儀禮服으로 폭과 길이가 큰 치마의 앞 부분 상부에 덧주름을 잡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 디자인으로 뒤 형태의 外觀은 크기는 다르나 버슬 스타일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外觀에 적합한 속옷 즉, ① 옆트임 개당고 누비 속바지 ② 뒤트임 개당고형 솜 누비 속바지 ③ 옆트임 합당고형 무명 겹바지 ④ 文化柳氏 단속곳 등을 여러겹 겹쳐 착용하였을 것이다.

1748年 作品인 「石泉閒遊」圖에 보이는 女人은 前時代의 服裝보다 간소한 차림새를 보여준다.

이러한 形態의 外觀을 表出하기 위해 여러겹의 속옷, 즉 ①다리속곳 ② 옆트임 개당고형 바지 ③ 개당고형 바지 ④ 옆트임 합당고형 명주 솜바지(바지 밑단 횡주름) 등을 겹쳐 착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實錄》을 비롯하여 《상방정례》, 《嘉禮都監》등에서 보이는 裏衣라는 명칭이 있다. 裏衣¹⁷⁾는 글자의 뜻으로 보아서는 上下 속옷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례 기록을 살펴보면, 항상 赤苧 다음에 裏衣를 적고 있기 때문에 치마의 속옷으로 입은 것이므로 상의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裏衣는 여기에서 걸치마가 아닌 속치마로서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裏衣로서 속치마를 착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임란을 거치고 후기 영·정조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신윤복의 「美人圖」에서 볼 수 있듯이 치마 허리 말기가 저고리 아래로 보일 정도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의 형태는 항아리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 즉 前期의 직선형의 輪廊線의 치마 윗부분이 부풀려진 輪廊線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輪廊線의 변화에는 그 안에 입었던 속옷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리

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輪廊線 表出에 적합한 속옷, 즉 ① 다리속곳 ② 속속곳 ③ 바지 ④ 단속곳 ⑤ 너른바지 ⑥ 무지기 치마 등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 속옷에는 다리 속곳을 포함하여 속속곳, 바지, 단속곳이 있다. 가장 안쪽에 다리속곳을 입고 그 위에 속속곳, 다시 그 위에 속곳, 즉 바지를 입고 더욱 격식을 차려 입을 때는 치마를 부풀릴 수 있도록 속속곳과 거의 같은 형태의 단속곳을 입었으며, 특히 상류층에서는 盛裝할 때 치마 윗부분을 부풀게 하기 위해 무지기, 즉 無足衣라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더욱 중후한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 대습치마를 입었다¹⁹⁾고 한다.

19世紀의 동아대 박물관 소장의 「美人圖」는 트레 머리가 아닌 쪽진 머리로 여유가 있는 소매를 한 저 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머리의 형태가 축소되자 저 고리의 소매는 약간의 여유가 가미되었고, 치마는 길이가 길어진 대신 부피감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치마의 輪廊線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개의 속 옷, 즉 ① 다리속곳 ② 속속곳 ③ 바지 ④ 단속곳 ⑤ 너른바지 ⑥ 무지기 치마 ⑦ 대습치마 등을 겹쳐 착용하였을 것이다.

19世紀(後)頃의 여성으로 저고리의 형태는 이제 까지의 窄袖가 배래선의 曲線表現으로 넓어졌고 치마의 형상도 수직선을 지향한 단아한 모습으로 간소화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며 봉긋한 형태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치마의 輪廊線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속옷, 즉 ① 다리속곳 ② 속속곳 ③ 바지 ④ 단속곳 ⑤ 속치마등을 겹쳐 착용하였을 것이다.

20世紀(前)頃의 女人的 服飾은 開花期의 영향으로 좀 더 단조로워진 형태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모습이다. 이는 ① 바지 ② 단속곳 ③ 실창고장이 ④ 조끼허리 속치마 등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2. 西洋과 우리나라의 속옷 比較

西洋과 우리나라 속옷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분석해 본 바, 西洋복식은 16世紀頃부터 20世紀(前)頃에 이르기까지 西洋의 속옷과 겉옷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대마다 변천요인으로 因한 사용된 속옷의 類形에 따라 각기 다른 服飾의 外觀을 表出하였다.

服飾文化史의 背景의 영향 關係는 西洋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속옷의 形態는 西洋의 속옷과 우리나라 속옷은 겉옷에 表出되는 外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西洋과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특성을 지닌 실루엣이 존재하였다.

16世紀에 있어서, 속옷의 形態는 西洋은 허리선과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콜셋과 패딩게일을 착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589년 甘露王圖(部分)에 보이는 女人們의 服飾은 傳統服飾이다. 저고리의 넉넉함과 치마의 유연하며 긴 선의 흐름 형태를 착용한 外觀이다.

또한 16世紀의 淑夫人 原州元氏 儀禮服은 복원품이다. 이는 앞부분 3폭 상부에 17cm 너비의 덧주름 잡아, 앞 부분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올렸으며 뒷 부분은 길고 부풀린 外觀의 형태이다.

西洋과 우리나라의 形態에 있어서 서로 다른 服飾文化史의 背景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世紀에 있어서, 西洋은 가는허리, 부풀려진 엉덩이, 자연스럽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드러나게 만든 도발적인 가슴등이 18世紀 실롱의 여성적인 분위기의 이상적인 옷차림이었다. 이를 해결해 주는 보조 용 도구가 파니에와 콜셋이었다.

우리나라는 18世紀의 服飾着用 女子人物圖 3개 중 「蕙園의 美人圖」는 短小化된 저고리에 항아리 형태로 부풀린 치마를 착용한 女人圖이다.

여기에서 18世紀 로코코시대 女性服과 18世紀 조선시대 女性服은 단지 치마의 부풀림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로코코시대에는 스커트 버팀대인 파니에에 의해 스커트가 한껏 부풀려지고 머리는 점점 크고 높아져 거대한 구조물처럼 되어졌으며 거대한 머리형을 만들기 위해 말털의 패드, 철사로 만든 머리틀, 포마드, 밀가리 풀 등을 사용하였다.²⁰⁾

같은 시대인 18세기 조선시대에는 단소화된 저고리와 장대화된 치마의 조화로 '上薄下厚'의 형태미를 연출하며 넓은 허리말기를 중심으로 신체에 더욱 밀착되어 단소해진 저고리와 풍성하고 장대한

치마를 착용했는데, 거대한 트레머리와 밀착된 저고리, 둥글게 부풀어오른 치마의 대비로 굴곡이 심한 윤곽선을 형성한다.²¹⁾

이는 18세기 조선시대 여성복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朝鮮王朝時代에 들어와서도 出嫁女에게 얹은 머리가 유행하여 加髢가 성행하였고, 이때의 부녀자는 큰 가체 머리를 자랑으로 여겨 다투어 큰 머리를 마련하기에 수백금을 소비하는 등 지나친 머리에 대한 사치풍조를 막기 위해 관가에서 또는 궁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시대였다.²²⁾

이처럼 18세기는 西洋과 한국에 있어 머리에 대한 사치가 가장 심하였던 시대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커트의 폭 역시 가장 확대되었던 시대로 단지 치마의 부풀림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19世紀에 있어서 西洋은 콜셋은 앞이 납작하고 헙을 부풀리기 위해 뒤가 짧은 형태가 창안되었다. 스커트에는 베슬이라는 패드를 넣어 힘이 돌출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버팀대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저고리의 소매는 약간의 여유가 가미되었고, 치마는 길이가 길어진 대신 부피감은 감소되었다. 무지기 치마는 19世紀 대원군 시기의 속옷으로, 이는 西洋의 19世紀 크리놀린과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西洋과 우리나라가 서로 영향은 없으면서 동일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19世紀 西洋과 우리나라 속옷의 형태는 서로 다른 服飾文化史의 背景으로 서로 영향이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0世紀에 있어서, 西洋은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서 콜셋은 폐지되었고 어깨부터 똑바로 내려오는 원피스 형식의 단순한 形이 생겨 허리선을 밑으로 내려놓았다.

전기는 단순화와 합리화에 力點을 둔 형태이었다. 폭이 좀 더 좁아지고 길이도 더 짧아졌다.

西洋과 우리나라의 형태는 서로 다른 服飾文化史의 背景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속옷의 素材에 있어서, 西洋은 주로 도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20世紀에 이르러서는 織物을 주로 사

용하였다.

우리나라 속옷의 素材는 주로 織物을 사용하였으며, 왕족이 사용하였던 대습치마 단에는 창호지 백비를 4cm높이로 모시를 싸서 붙여 만들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백비대신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다.

속옷의 機能은 16世紀부터 19世紀에 이르기까지 西洋에 있어서 겉옷의 外觀을 풍성하게 유지하게 하는 보조 버팀대 역할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속옷의 機能은 外觀을 表出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였다.

1. 形態(西洋)

1) 슈미즈(Chemise)

14세기~15세기의 슈미즈는 목둘레가 크고 여유가 있으며 소매를 겨드랑이에 꼭 끼게하여 가슴을 誇張케 했다.

또한 16세기 中葉에 사각형으로 목이 깊게파진 데코르타즈(decolletage)에 받쳐입기 위한 슈미즈는 목선이 낮았다. 18세기의 슈미즈는 길이가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고 레이스(lace)로 가장자리가 둘러져 있으며 어깨 부분이 없이 보디스(bodice)의 낮은 데콜르타즈 선을 따르고 있다.

엠파이어時代의 슈미즈 形態는 簡形으로 목이 사각으로 파였고 머스린(muslin)으로 주름 裝飾의 端을 했으며 길이는 무릎 정도였다.

낭만주의時代도 거의 같은 形態로 白麻製가 많았으나 목선은 원형도 있었으며, 밑으로 쳐진 덮개 모양의 목裝飾도 있었고, 어떤 것은 망사나 레이스테가 둘러진 수놓은 손목 밴드와 함께 긴소매이었다.

1880年代 後半부터는 점차 허리선이 높아지고 소매는 퍼프(puff)로 裝飾된 엠파이어 슈미즈가 등장하기 시작해 1900年代 初에는 어깨끈이 좁고 목선이 사각으로 파졌으며 자수가 놓여있는 엠파이어 슈미즈가 대유행을 했다.

2) 콜셋(Corset)

(1) 바스킨(basquine)

바스크는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 形式으

로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役割을 하는데, 下端部는 삼각형으로 뾰족했던 것이 점차로 下腹部까지 棍狀으로 뻗쳐지게 되었다.

(2) 코르피케(corpse-pique)

코르피케는 16세기 後半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코르-피케(corpse-pique)는 2개 이상의 麻布를 胸體에 맞추어 재단해서 그 속에 얇은 心을 펴놓고 옷감과 함께 누빈 것인데, 앞 뒤 옆 등의 주요부분에는 바스크(basque)와 고래수염을 插入시켜 胸體를 강하게 조여주었다.

17세기 初에 나타난 코르피케는 初期의 것보다 간단한 形式으로 목들레는 앞이 깊게 파였다. 1860年代에 허리둘레의 퍼짐이 적어지고 웨이스트 라인(waist line)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다시 胸體가 약간 짚아졌으며 앞중심 下端의 예리한 모양도 부드러워졌다.

(3) 코르발레네(corpse-baleine)

17세기 後半부터 불란서革命에 이르는 사이 西歐婦人이 사용한 콜셋으로 形態는 종래의 코르피케를 토대로 해서 고래수염을 넣는 방법이나 바느질 방법이 몸통을 가장 合理的으로 조이게한 것인데 바탕을 풀 먹인 단단한 캔버스(canvas)²³⁾ 2장 또는 그 이상을 습쳐 그것에 0.5~0.6cm 정도의 간격으로 스테치(stitch)하여 그 곳에 고래수염을 넣어 완성시킨 것이다.²⁴⁾

18세기 中葉에는 새로운 形態의 콜셋이 유행했는데, 베팀대인 코르-발레네(corpse-baleine)를 사용하면서 曲線과 直線의 고래수염을 이용하여 배와 등을 판판하게 하며 乳房을 더욱 풍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方法의 創案이 바로 그것이다.²⁵⁾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콜셋의 形態난 材質에 많은 발전이 있어 점차 합리적인 속옷이 되었다. 크리놀린 時代에는 콜셋이 더 한층 進步되어 1844年 뒤를 랭 女史(Madam Du-moulin)에 의해 바스크나 고래수염 없이 몸의 곡선에 따라 7~16매 정도의 형겼으로 된 새로운 콜셋이 개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女子의 服裝이 급속히 合理的이며 活動的으로 되었고, 또한 섬유산업의 발달로 콜셋은 매우 부드러운 形態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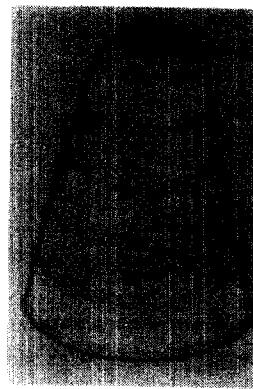
3) 후프(Hoop)

(1) 베르튀가댕(vertugadin)

베르튀가댕은 ① spain 式 ② 英國式 ③ 佛蘭西式 3종류로 분류한다.

① Spain 式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철사, 등나무, 골풀(rush), 고래수염 등으로 둥글게 만든 틀을 linen이나 면으로 감아 풀먹인 linen 속치마에 붙인 形態인데, 직경이 작은 틀을 위에 큰 틀은 밑에 두어 거꾸로 한 칼대기 모양을 만들고 있다.(圖 1, 2)



<圖 1> spain 式 vertugadin(16C)

(출처 : A history of fashion, 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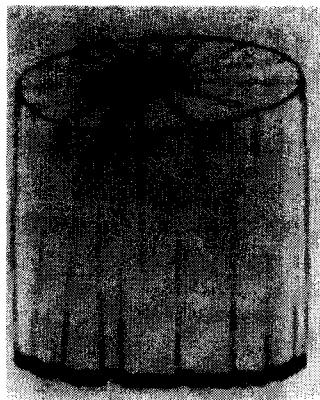
<圖 2> 스페인식 의상을 입고 있는 肖像(1584)

(spain : Isabella Clara Eugenia)

(출처 :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1998), survey of Historic costume, p.304)

② 英國式

英國에서는 이를 파팅게일이라 불렸는데 初期의 形態는 Spain 式 배르뒤가댕과 비슷하여 허리에서 端에 이르기까지 점차 폭이 증가되는 鐘形이었으나 1586~1588年頃 Elizabeth 1世 時代때 새로운 形態의 輪(wheel)-파팅게일이라고 하는 대형 베팀대가 창안되었는데 이것의 모양은 무척 위풍당당하게 보였다. (圖 3, 4)



<■ 3> wheel farthingale

(출처 : J. Anderson Black, A history of fashion, 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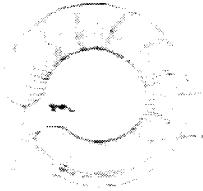
<■ 4> wheel farthingale을 착용한 여왕 Elizabeth I의 外觀(1593)

(출처 : Francis Boucher, 20,000 years fashion Book, p.237)

③ 불란서 式

이것은 오스 큐 또는 롤(roll)-파팅게일이라고 불렸는데 15세기 末頃 스페인(spain)에서 보여지긴 했으나 그후 16세기 불란서에서 크게 유행했다. 形態는 자동차의 타이어(tire)와 같고, 제작방법은 毛, 麻, 絹

등의 천을 簡型으로 꿰매고 나서 그 속에 말털, 부스러기 羊毛, 모직물이나 아마포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 팽팽하게 한 것인데²⁶⁾ 취급과 동작이 편리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승마용으로 愛用되었다. (圖 5, 6)

<■ 5> hausse cul (A.B:철사심을 넣은 부분) (16C 후반)
(출처 : Black, J. Anderson, A history of fashion, p.122)<■ 6> 르네상스 시대의 Roll-farthingale을 착용한 여인들의 外觀(프랑스 왕 Henry III의 궁정에서의 무도회(1582))
(출처 : Phllis Tortora, Survey of historic costume, p.305)

(2) 파니에(Panier)

17세기에는 일반적으로 활동하기 편한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변했기 때문에 간단한 배개 모양의 흐드드가 사용되었는데 철사로 엮은 것과 馬毛를 짜서 만든 것이 있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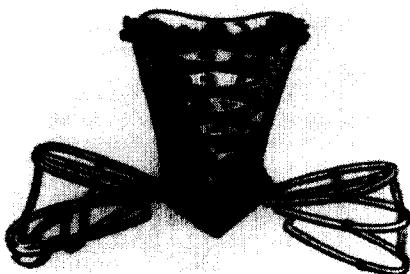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여년 동안만 계속되었고, 17세기 중엽부터 다시 페티코티를 받쳐서 부피를 늘린 비기능적인 형태로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힙의 양옆으로 퍼지는 파니에를 사용하여 거창한 실루엣을 이루기도 했다.²⁸⁾

그 후 1710年頃부터 Rococo 式의 화려한 의상이 유행되면서 18세기 들어 새로운 베팀대인 파니에가 등장하게 되었다.

導入 당시에는 가는 철사나 나무를 사용하여 등근테를 만든 후 벨 모양이 되게 허리부터 端까지 배

열하였으며, 나중에는 木綿, 毛, 絹 등의 천에 가는 테이프를 붙여 박아 거기에 탄력있고 견고한 고래 수염을 끼워 넣어 만들었다. 이것은 初期의 것보다 폭이 넓었다.

그 후 1750年頃에는 전후의 폭이 급격히 감소되고 양옆으로 확장되어 大形의 타원형이 되었는데, 활동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양옆만을 부풀게 한 形態가 개발되어 이것을 불란서에서는 파니에 두블이라 했고, 영국에서는 사이드 후프(side hoop)라고 했다. (圖 7, 8) 이것의 크기는 점차 확대되어 출입구를 지나가기도 힘들다가 1775년 이후에는 동작에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양쪽 옆에 튀어나온 骨組를 필요에 따라 겨드랑이 밑에 접어 붙이는 形式이 나타났다.



<圖 7> panier (18C 中)

(출처 : Survey of historic costume, p.238)



<圖 8> panier double을 착용한 外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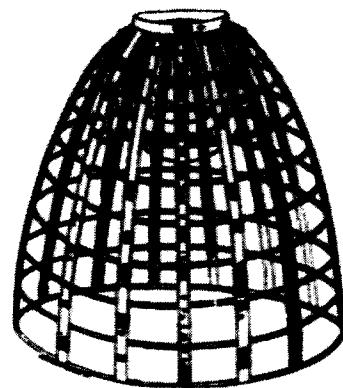
(출처 : Bjarne Kilde Goard, Dressed in time, p.8)

(3) 크리놀린(Crinoline)

1850~60년 이후로 스커트를 넓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 입던 것으로 초기의 것은 말총이나 고래수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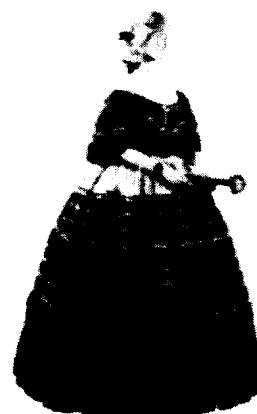
두 겹의 머슬린 페티코트사이에 끼어 넣어 만들었으며 dome형에 가까웠고, 後의 것은 철제의 등근테를 둘레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배열하고 이것을 세로로 연결시켜 점차 아랫단이 피라밋같이 넓게 퍼졌으며 앞보다 뒤가 더 퍼지기도 했다. (圖 9, 10)

1856年부터는 천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철재만을 공들여 組立하였다. 이것이 계속 사용되다가 영국에서는 이 새장 크리놀린 (圖 10)의 缺點을 보완하기 위해 고무를 사용하여 후프를 끼워 만든 것이 발명되었으며 後에 리본을 사용해 여러 층의 테가 아래 위로 수축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널리 보급되었다.



<圖 9> 철재만을 이용한 crinoline(1858)

(출처 : Doreen Yarwood, Survey of historic costume, p.306)



<圖 10> crinoline style을 착용한 外觀(1856~1858)

(출처 : Survey of historic costume, p.308)

(4) 버슬(Bustle)

버슬 스타일은 버슬이라는 허리 받침대를 사용해

서 엉덩이가 돌출하게 함으로써 실루엣을 만들어 준 것인데 機具가 사용되기 전에는 고래수염과 철사, 크리놀린 化한 천을 사용하여 엉덩이에서 端까지 부풀도록 한 일종의 페티코트를 입었고, 1880年代 末부터 다양한 構組의 베텀대가 나타났다.

形態는 말총이나 새털을 넣어 만든 쿠션(cushion) 같은 것, 철사로 만든 삼태기 같은 것, 천으로 주름 잡은 것, 크리노레타(crinoletta)가 붙어 있는 것 등이었고, 착용방법은 허리받침을 페티코트 위에서 가는 belt로 허리를 잡아매게 하거나, 또는 페티코트의 뒤 허리 한 부분에 직접 붙이도록 했으며 그 위에 裝飾用 페티코트를 볼여 衣裳을 着用하게 되었다.²⁹⁾

1680년대에는 스커트를 뒤로 모아서 뒤 허리선에 집어넣어 베슬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형의 스커트가 개발되었다.³⁰⁾

힙을 부풀리기 위해서 1680년경까지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680년대가 되어 「cul de paris」라 하는 힙에 붙이는 허리받침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³¹⁾

또한 1820년대 후반기에는 베슬이 다시 등장했는데, 스커트의 부풀림을 강조하기 위해 힙 패드를 스커트 아래에 착용하였다.³²⁾

스커트에는 베슬(bustle, tournure)이라는 패드를 넣어 힙이 돌출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베텀대가 사용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베슬 패드를 만들어 속치마의 힙 부분에만 달아준 것이고, 또 하나는 강철사(強鐵絲)로 삼태기와 같은 틀을 만들어 속치마 위에 입는 것이다. 이러한 스커트 베텀대를 착용했을 때는 힙이 거의 90° 각도로 밖으로 이룬다. 또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트레인(train)을 뒤허리에 달아 힙을 강조하는 베슬 실루엣을 구성하기도 했다.

베슬 스타일의 베슬 부분은 힙 드레이프(hip drape), 또는 힙 백(hip bag)이라고도 하며 복잡한 주름과 과다한 러플, 레이스 등으로 장식되었다. 또한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페티코트 드레스에는 먼지 결레인 더스트러플(dust ruffle)을 달기도 했다.

스커트 단의 강조는 1880년대가 되면서 힙쪽으로 점차 옮겨지게 되어 1880년대 중반에는 힙부분이 거의 직각인 될 정도로 리본장식이나 주름으로 강조되

었다(圖 11). 직각으로 돌출되었고 큰 베슬은 1888년이 되면서 그 크기가 갑자기 약화되고 1890년대가 되면 거의 사라져 베슬 스타일이 갑자기 새로운 아워글라스 실루엣으로 변화하게 되었다.³³⁾ (圖 12)



<圖 11> 접어지는 bustle(1887)
(출처 : J. Anderson Black, History of fashion, p.208)



<圖 12> bustle style을 착용한 外觀(1887)
(출처 : 20,000 years of fashion, p.389)

4) 페티코트(petticoat)

16세기 初까지 인위적인 후프드 페티코트 또는 베르튀가댕에 의해 외형선이 유지되었으나, 1625年부터 베르튀가댕의 사용이 감소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풍성한 페티코트가 着用되었는데 사틴(satin)이나 다른 견직물을 材質로 삼았고 대조적인 색으로 선을 들렸으며 어떤 경우에는 金레이스로 장식했다.³⁴⁾

그 후 간편한 skirt가 유행됨에 따라 그 수요는

잠시 감소되었다가 17세기 중엽부터는 다시 페티코트를 받쳐 풍성하게 입게 되었으며, 末頃에 불란서에서는 麻布에 아교나 풀을 칠해서 뱉치게 한 페티코트가 고안되었다.³⁵⁾

그 후 엠파이어時代에는 얇은 綿布나 麻布가, 겨울에는 프란넬로 된 페티코트가 사용되었는데 몸통과 스커트가 달린 形態였다.

1830年代에 스커트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페티코트의 효과 또한 중요하게 认識되어 1840年後半期부터는 4~6매의 페티코트를 겹쳐 입었는데 안에 있는 것은 裝飾없는 白色의 천이었으나 바깥의 것일수록 아름답게 치장하여 lace나 천으로 단장을 하였다.

1870~80年代의 裝飾用 페티코트는 화려한 色보다는 흰색이나 粉紅色의 연한色을 사용했고 1890年代에는 다시 짙고 화려한 色의 silk 페티코트가 愛好되었으나 주름裝飾 또는 레이스, 리본등의 복잡한 裝飾은 사라지고 대개 아코디온 주름이나 약간의 레이스 裝飾이 있었다.

20세기 이후부터는 페티코트의 크기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S-커브 스타일을 위한 페티코트는 허리와 엉덩이 근처에 필요 없는 주름을 없애고 chiffon이나 얇은 毛織物을 사용해 섬세하게 만들었다.

1910年頃 호블 스커트의 등장으로 속에 호블 페티코트를 着用했는데 bodice에서 무릎까지 부풀리고 그 아래로 좁게 된 것이다.

그 후 스커트의 폭이 좁아지면서 princess 페티코트가 유행되었고 1914~29年 사이에는 waist 페티코트가 유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좁고 타이트한 것이었으나 後에는 밑부분이 넓고 주름 裝飾이 있는 것도 着用되었다.

5) 드로워즈, 팬탈룬즈(Drawers, Pantaloons)

一般的인 形態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오며 대체로 풍성했고 19세기 初期의 것은 바지통이 넓고 밴드(band)가 부착되어 있어 무릎 바로 아래에서 단추로 채우거나 밴드 끝에 달린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6) 混合式 속옷

(1) 컴비네이션(combination)

1877年代의 것은 앞, 뒤 모두 open 되어있고, 때로는 목둘레선이 높고 소매가 길었으며, 一般的으로 페티코트를 묶을 수 있게 엉덩이 주위에 단추가 달려있었다.

1888年 새로운 形態의 컴비네이션이 등장했는데 코튼과 올로씨 속이 비치게 만든 것으로, 以前의 슈미즈와 드라워즈의 混合된 形態가 아니라 짧막한 보디스(bodice)와 페티코트 또는 보디스와 드로워즈가 연결된 것이었다.

(2) 캐미-니커즈(cami-knickers)

캐미솔(camisole)과 니커가 연결된 것으로 材質은 얇고 부드러운 실크, 메리노 또는 혼방직물들 점점 다양해졌고, 주름과 레이스로 아름답게 裝飾하였다.

(우리나라)

1) 무지기 치마

무지기는 특수복으로 상류계급에서 정장할 때 대습치마 속에 입어 봉긋하고 우아한 치마선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입었던 속치마로서 무지기라는 명칭은 길이와 빛깔이 각각 다른 여러개의 치마를 짧은 것부터 차례로 허리에 달아 밑단이 무지개 모양을 이룬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圖 13)



<■ 13> 무지기, 이대박물관 소장)

(출처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284)

2) 대습치마

궁중에서 사용하던 속치마의 일종으로, 예장을 할 때 허리아래는 무지기로써 버티고 아래는 이 대

습치마로 받쳤다. 대습치마는 무지기 밑에 입는 것으로 모시 12폭으로 하였는데, 12폭길이는 끌리지 않을 정도이었다. 단에는 창호지 백비를 높이는 4cm 정도, 둘레는 치마폭으로 만들어 모시로 싸서 붙였다.³⁶⁾



<圖 14> 美人圖(潤松 美術館藏)
(출처 : 孟仁在, 한국의 미, 20, 人物畫, p.84)

3) 다리속곳

가장 밑에 입는 속옷으로 그 형태는 훌겁의 긴 깁을 허리띠에 달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속속곳이 크기 때문에 자주 빨 수 없으므로 손쉽게 자주 빨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4) 속속곳(內襯衣)

이것은 바지 밑에 입는 것으로 단속곳과 그 형태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치수가 단속곳보다 약간씩 작고 바대나 밑 길이가 길었다.

5) 단속곳(單襯衣)

이것은 바지 위에 입는 속옷으로, 일상복에서는 이 위에 치마를 입어 왔는데, 치마보다는 다소 짧은 것으로 양가랑이가 넓으며 밑이 막혀 있다.

6) 바지, 고쟁이

이것은 소위 여자 榮로서의 바지가 아니고 치마 안에 입던 속곳으로서의 바지를 말한다. 이 속바지는 단속곳 및 속속곳 위에 입었는데, 밑이 따로 떨어져 있고 허리끈이 달려 있다.

7) 너른바지

주로 상류계층에서 정장할 때 밑받침 옷으로 단속곳 대신 입어 하체를 풍성하게 보이게 한 속옷의 하나였는데, 이것은 단속곳과 바지를 겹쳐 놓은 것 같은 가랑이가 넓은 것으로 겹으로 되어 있었으며, 앞은 막히고 뒤로 여미게 하였다.

8) 살창고쟁이

살창고쟁이란 일명 '다리고장이'라고도 하며, 삼베로 만든 이 바지는 고쟁이 중에서도 여름철용으로 고안된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바지로서 구멍을 내어 주름이 없으므로 여름철에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였다고 한다.

2. 素材와 色彩

(西洋)

1) Chemise

14-15세기의 Chemise는 대개 白麻로 만들어졌고, 貴族人們은 자수가 된 白絹을 사용하였다.

16世紀 속옷의 슈미즈는 린넨, 울, 금·은絲가 들어간 린넨, 실크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16세기 中葉에 사용했던 材質은 cambric(흰 삼베), 홀랜드(holland)(삼베의 일종)이며 이따금 silk도 사용되었다.

18세기의 슈미즈는 옷감은 점차 다양해져 交織物이 사용되었다. 엠파이어時代의 슈미즈는 머스린(muslin)으로 사용되었다.

1917年에는 환색, 하늘색, 분홍색 등의 연한색을 즐겨 사용했다. 옷감은 부드럽고 차분한 nainsook을 主로 사용했고, 그 외에 raw silk 등도 사용했다.

2) 쿨셋(Corset)

소재는 고래수염이나 등나무, 린넨, 면, 綾織의 綿布 코딩, 실크등을 사용하였다.

1904-1905年頃 s-curve가 유행하였는데 사용한 옷감은 다채로운 色의 사틴(satin)이나 브로케이드(brocade)등의 견직물로 여기에 자수를 놓거나 레이스裝飾을 했다. 그 후 여러 가지 形態의 쿨셋이 創案되었는데, 材質은 합성섬유에 면, 레이온, 고무

질 등을 섞어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게
製造되었다.

3) 흐프(hoop)

(1) 베르튀가댕(vertugadin)

① 스페인式

布地로는 여러 종류가 있어 얇은 모직이나 타페타(taffeta), 비로오, 모카도(mocado) 등의 고급 견직물이 사용되었고, 色은 白色, 赤色, 淡茶色등이 있었다.³⁷⁾

② 英國式

1586-1588年頃 Elizabeth 1世 時代에 麻布의 바탕되는 천에 고래수염, 철사 다마스크(damask)와 타페타(taffeta) 등이 사용되었다.

③ 불란서式

毛, 麻, 絹 등의 천을 鐘型으로 꿰매고나서 그 속에 말털, 부스러기 羊毛, 모직물, 아마포 등이 사용되었다.

(2) 파니에(Panier)

17세기에는 흰 패드가 사용되었는데 철사로 엮은 것과 馬毛를 짜서 만든 것이 있었다.³⁸⁾ 18세기에는 철사, 나무 木棉, 毛, 絹, 고래수염 등이 사용되었다.

(3) Crinoline

1850-60년 이후로 초기의 것은 말총, 고래수염, 머슬린, 철체를 사용하였다.

(4) Bustle

고래수염과 철사, 말털, 새털을 사용하였다.

4) 페티코트(Petticoat)

16세기에 붉은 색의 모직이 많이 사용되었다. 1625年부터 세틴이나 견직물 金 lace로 장식했다.³⁹⁾

엠파이어時代에는 얇은 綿布나 麻布, flannel을 사용하였다.

1840년 후반에 까블로, cashmere, flannel, taffeta, alpaca 등이 사용되었으며 누빈 silk를 사용하였다. 色은 주홍과 보라색이였다.

1870~80年代의 페티코트는 화려한 色보다는 흰色이나 粉紅色의 연한色 이였다.

5) Drawers, Pantaloons

linen, cotton 또는 muslin silk나 wool을 사용하였다. 中葉에는 flannel merino와 lamb's wool(양털)을 사용했다. 1900년에는 muslin silk를 사용했다.

6) 混合式 속옷

(1) Combination

1877年代 材質은 主로 分홍과 미색의 linen, merino, nainsook, calico, cambric silk 등이 사용되었다. 1880年 wool, silk, nainsook을 사용했다. 1888年 cotton과 wool을 사용했다. 1930年代 merino, silk 와 wool의 혼방을 사용했다.

(2) cami-knickers

실크, 메리노, 혼방직물 등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朝鮮時代 後期 女性의 傳統속옷의 素材와 色彩는 다음과 같다.

(1) 무지기 치마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분홍색 단색으로 총총이 물들이고 나이 젊은 사람은 단마다 색을 다르게 하여 연두, 분홍, 노랑의 순서로 얹게 들었으며,⁴⁰⁾ 사철을 모시를 사용하였다.

(2) 대습치마

소재는 모시로, 색채는 흰색을 사용하였다.

(3) 다리속곳

소재는 면으로, 흰색⁴¹⁾을 사용하였다.

(4) 속속곳

목속으로는 옥양목·무명·광목 등으로 하였고, 좀 고급으로는 명주 정도의 부드러운 감을 사용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특히 베·굵은모시·광당포·안동포 등을 사용하였다.

(5) 단속곳

색은 주로 흰색을 입었으나 나이가 든 사람은 옥색이나 회색을 입었는데, 여름 것은 모시·아사·항라·생고사·생노방 등을 사용하여 백이로, 겨울 것은 명주·삼팔·자미사 등을 사용하여 호아서 바느질하고 단을 풀로 붙였다.⁴²⁾

(6) 바지, 고쟁이

겨울에는 명주·온주·삼팔·산동주·자미사·숙수·호박단 등으로 안에 솜을 넣어 지어 입었으

며, 춘추로는 겨울감에다 솜을 빼고 겹으로도 하였고 또 숙고사 등에 얇게 솜을 넣어 초봄·늦가을에 입기도 했는데, 특히 누비로 많이 해 입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모시·생모시·생노방·당항라·모시항라·광당포·베·안동포등을 흙으로 하여 시원하게 만들어 입었다.

(7) 너른바지

옛날에는 주로 비단을 사용했으며, 색채는 흰색이다.⁴³⁾

(8) 살창고챙이

삼베나 모시 등으로 만들었으며 색채는 얕은 황색, 흰색 등이었다.

3. 身分階層과 silhouette

(西洋)

여성에 있어서 스커트의 크기로써 階層 구분을 하였으므로 속에 입었던 farthingale類와 아름다운 petticoat의 풍성함에 따라서 身分의 높고 낮음이 구별되었으며 입혀진 petticoat의 數는 지위와 富를 나타내는 身分의 상징이 되었고 유행에 대한 감각을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한편 조선시대의 치마는 신분표시의 수단이기도 했다. 양반 부녀의 치마는 넓고 길었으며 치마 끝에 금직이나 금박을 놓은 스란(膝襯) 치마였다.

VI. 結論

人間에게 衣服의 着用에 있어서, 겉옷만큼 그 속에 착용되는 속옷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겉옷은 美意識과 美的基準이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하였으며, 신체부위마다 부여되는 美的基準이 변하여 또한 속옷도 外衣의 변화에 준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하였다.

西洋과 우리나라 속옷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분석해 본 바, 西洋복식은 16世紀頃부터 20世紀(前)頃에 이르기까지 西洋의 속옷과 겉옷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대마다 변천요인으로 因한 사용된 속

옷의 類形에 따라 각기 다른 服飾의 外觀을 表出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옷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속옷과 치마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단지 저고리의 길이와 치마의 길이에 변화를 보였으며, 또한 의복의 착장방법에 따른 실루엣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속옷의 機能은 16世紀부터 19世紀에 이르기까지 西洋에 있어서 겉옷의 外觀을 풍성하게 유지하게 하는 보조 베일대 역할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속옷의 機能은 外觀을 表出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및 미주

- 嘉禮都監儀軌, 藏書閣本, 인조5년, 1627~고종43년, 1907.
- 家禮諺解.
- 國婚定例.
- 嘉禮集賢.
- 高麗史,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2.
- 宮中件記, 藏書閣.
- 朴珪壽, 居家雜服考, 卷之二, 內服篇, 高宗年間.
- 晉書, 서울: 경인문화사, 1976.
- 增補文獻備考.
- 成宗實錄.
- 沈錚, 松泉筆談.
- 成倪, 樂學軌範.
- 禮記.
- 『世宗實錄』卷 第四十三
- 『尙方定例』
- 成倪 外 築, 『樂學軌範』, 서울: 延世大學校 영인본, 卷之八(蓮花臺服飾), 卷之九(女妓服飾).
- 『太宗大王實錄』卷 第二十三
- 『世祖大王實錄』
-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 30. 土小節 下. 婦儀·服飾
- 李裕元 『林下筆記』 卷二十七 春明逸史 參照
- 崔世珍 『訓蒙字會』, 中宗 二十三年.
- 李義鳳 『古今釋林』, 正祖 十三年.
-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坤
- 徐有栗 『林園十六志』展攻志 卷參参照.
- 權賢珠, “우리나라와 西洋 服飾에 나타난 階層標識에 관한 研究”, 誠信女子 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博士 學位 論文, 1999.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高裕燮, 「우리의 美術과 工藝」, 서울: 悅話堂, 1977.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1994.
- _____,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p.23.
- 金圭泰(註解), "烈女春香守節歌(完版原本)" 「春香傳」, 서울: 三中堂文庫, 1980.
- 김교옥, "17세기의 Baroque시대의 여자복식", 서울: 건국학술연구원 학술지, 1966.
-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_____, "內衣의 外服化와 外衣의 内服化" 韓國服飾史 辨證, 「박물관신문」, 4月.
- 김미자, "치마·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제 17호, 1988.
- 김순철, "朝鮮朝 後期의 實學思想과 風俗畫",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金仁卿, "蕙園 申潤福 風俗畫에 표현된 服飾美의 연구", 「服飾」, 第二十五號, 韓國服飾學會, 1995.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대우 학술총서 No. 64-, 서울: 민음사, 1992.
- 金英姬, "전통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혜진, "한국여성 친의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大世界百科, 太極出版社, 서울: 1972.
- 민숙현, 박혜경, 「이화 100년 야사」, 서울: 지인사, 1981.
- 박경자, 「한국복식론고」, 서울: 신구문화사, 1983.
- _____, "혜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韓國의 服飾」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朴東俊 編, 服裝의 心理 서울: 維新文化社, 1981.
- 박동욱, "여성과 사회" -논문집 No.12-,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1981.
- 박성실, "朝鮮朝의 치마, 저고리", 석주선 박물관 특별 전, 1997.
- 신상옥, 「西洋服飾史」, 서울: 수학사, 1988.
- _____, 안동대학교박물관, 「安東地域傳 輯服飾」, 1996.
- 안희준 "조선왕조 후기 회화의 새 경향", 제 3차 한일합동학술회의, 한일 근세 사회의 정치와 문화 서울: 한일문화 교류기금.
- 權水敬,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서울: 一志社, 1991.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4.
- _____, 「한국의 복식」, 서울: 문화재 보호협회, 1982.
- _____, "한국여성 복식의 연구" -No.2-, 서울: 한국여성사, 1972.
- _____,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대 출판부, 1983.
- _____, "저고리와 친의류",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유희경 · 金美子, 「服飾編」, 《晋州河氏墓出土文献과 服飾調查報告書》, 大邱: 전들바우 박물관, 1991.
- 유희경 ·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 이기백, 「한국사 총론」, 서울: 일조각, 1980.
- 李圭泰, 「조선일보 7月 14日 李圭泰 코너」, 1987.
- 李禹煥, 「李朝의 民畫 · 構造로서의 繪畫」 서울: 悅話堂, 1982.
- 이은주 외 2인, 「서민 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I)」, 《韓國衣類學會志》18(5), 1994.
- _____, 「안동 사람들의 옷 맵씨는 어떠했는가?」, 安東大學校 附設 安東文化研究所 《안동문화》 제16집, 1995.
- 이정우 외, 「西洋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89.
- 이정우, 「新稿 西洋服飾史」 豐雪出版社, 1996.
- 이영환, 「西洋美術史」 서울: 1996.
- 李熙賢, "6-18世紀 西洋服飾의 變化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 吳京淑, "Underwear의 變遷史의 考察", 積士學位論文, 成信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梁秉祐, 「世界文化史」 서울: 1970.
- 全圭泰, 「春香傳」 서울: 三中堂, 1980.
- 정병우, 「한국고전시가론」, 서울: 新丘文化社, 1977.
- 정복희, "西洋복 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3.
- _____, 「西洋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5.
- 조풍연(해설), 「속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서울: 서문당, 1987.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1988.
- 차하순, 「西洋史 총론」, 서울: 탐구당, 1985.
- 漆谷郡派宗親會 編, 《전주이씨 高林君派 선조 유문집》, 전주: 1975.
- 최문환 외, 「경제사」, 서울: 박영사, 1987.
- 최영옥, "Underwear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 논문집 제 6집, 1984.
- 최향우, 「회화」, 한국미술전집 No.12, 서울: 동화출판사, 1979.
- 홍윤식, 《불화》, 대원사, 1992.
- 韓銀珠, "파팅계일에 관한 歷史的 考察", 성신여대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함옥상, "우리나라 여자 치마의 시대적 고찰", 과학논집 제1집, 계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1973.
- 허갑섭, 「服飾文化와 服裝史」, 서울: 이증 도서출판, 1988.
- 선병렬 역, A. 베벨, 「여성과 사회」, 서울: 한밭출판사, 1885.
- 유태순 역, Alison Lurie,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1986.

- 이순홍 외 4인 역, Francois Boucher, 「그림으로 보는 西洋복식사」, 서울: 경춘사, 1992.
 - 丹野 郁, 「西洋服飾發達史」-고대·中世·近世·現代編-, 東京: 光生館, 昭和53.
 - _____, 「服飾の 世界史」, 東京: 白水社, 1985.
 - _____, 「綜合服飾史事典」, 東京: 雄山閣, 1980.
 - 文化出版局 編,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79.
 - 石山 彰, 「服飾辭典」, 東京: ダラ~ィット~社, 1977.
 - 小池 一子 編, 「The undercover story」, 京都: 京都服飾文化研究財團, 1983.
 - 小川 安郎 外, 「被服學辭典」, 東京: 朝創書店, 1982.
 - 深井 光子 編, 「女の下着の歴史」, 東京: 文化出版局, 1981.
 - 田中 千代, 「服飾辭典」, 東京: 同文書院, 1982.
 - 田中 千代 編著, 「圖解 服飾辭典」, 東京: 婦人畫報社.
 - 被服文化協會 編, 「服裝大百科事典」-上, 下-,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56.
 - 河筈 實英 外, 「世界服裝文化史辭典」, 東京: 東京堂出版, 昭和48.
 - Allen Agnes, *The story of clothes*, London: Faber & Faber Ltd, 1975.
 - Beaulieu Michele, *Le Costume en Bourgogne*, Paris, 1956.
 -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California: Burgess Publishers co, 1979.
 -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California: San Diego state university, 1979.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 Boucher Francois,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and Hudson, 1987.
 -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and Thames and Hudson Ltd.
 - Braun L., Diez W., frolick E., *Costumes through the ages*, New York: Rizzoli, 1982.
 - Brooke Iris, *A history of English costume*, New York: Theatre arts Books.
 - Buck Anne, *Dres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1979.
 -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1954.
 - Cunningham C. willett, *Hand 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Faber & Faber Ltd. 1978.
 - Cunningham Phyllis, *Your book of mediaeval & Tudor Costume*, Faber & Faber Ltd, 1973.
 -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Vol.1, New York:crown Publisher, Inc. 1976.
 -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 1~, New York : Crown, 1976.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 Bonaza, 1986.
 -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83.
 - Evans Mary, *costume throughout the ages*, New York:J. B. Lippincott Company, 1950.
 - Flu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1930.
 - James Laver, *Costume in England & France, London* : Adam & Charles Black, 1979.
 - Jensen Jorgen, *Danmarks oldtid*, Kobenhavn : Nationalmuseets vejledmønster, 1993.
 - Johansen Katia, *Royal Gowns*, Rosenborg palace 1990.
 - kildegaard Bjarne, *Dressed in time*, copenhagen : virborg 1993.
 - Mrs. Merrifield, *Dress as a fine art*, Boston:John P. Jewett and Co. 1854.
 - Nancy Bradfield A.R.C.A, *900 years of English costume*, New York:Crecent Books, 1970.
 - Racinet Albert, *The historical Encyclopedia of costume*, the courtauld institute, 1876.
 - Rothstein Natalie,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victoria & Albert Museum, 1984.
 - Turner Wilcox R,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Willett C. & Cunningham Phy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Faber & Faber Ltd., 1981.
 - wilton R. L., *The book of costume*, Lopez Island, 1986.
 - Wilton R. L. shop, *The book of costume*: of Annals of Fashion(1846) by a lady of Rank, 1986.
 - Yarwood Doreen, *English costume*, London, B. T. Batsford Ltd, 1959.
 -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1986.
- 1) 琴基淑(1988),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8, p.23.
- 2) 柳喜卿(1975), “저고리와 친의류”,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1982), p.499.
- 3) 정병옥(1977), 「한국고전시가론」 (서울: 新丘文化社, p.300)
- 4) 梁秉祐 世界文化史, pp.2~5, (서울, 1970)
- 5) 李正玉 外, (1996), 「新稿 西洋服飾史」, 蟬雪出版社, pp. 183-184.
- 6) 李正玉 外, 前揭書, p.211.

- 7) Blanche Payne, op. cit, pp.387-388.
- 8) 정홍숙, 「西洋服飾文化史」, 서울: 교문사, 1998, pp.356-357.
- 9) 柳喜卿, 前揭書, p.396.
- 10) 조효순,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1998, p.225.
- 11) 被服文化協會編, 「服裝大百科辭典 -上-」,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p.410.
- 12)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 Boston: Faber & Faber, 1981), pp.13-15.
- 13) 페티코트: 佛語의 petit와 cote의 合成語로 작은 coat라는 뜻.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COSTUME (New York: BONANZA, 1986), p.316.
- 14) 李正玉 外, 前揭書, p.184.
- 15) 申相玉 著, 「西洋服飾史」(서울: 修學社, 1988), p.277.
- 16) 李德懋, 青莊館全書 卷 30, 士小節 下, 婦儀·服飾.
- 17) 《世宗實錄》卷九十八, 二年頃子九月戊寅·遷尊儀…(중략)...襯裙…(중략)...裏衣….
- 18)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p.139.
- 19) 柳喜卿(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486)
- 20) 申相玉 著, 前揭書, p.244.
- 21)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前揭書, p.39.
- 22) 박경자, "해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韓國의 服飾」(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344.
- 23) cotton, linen으로 두껍고 촉촉히 찬 직물
- 24) 崔英玉, "lops에 關한 고찰 (대구: 安東大學論文集, 1983), p.163.
- 25) 崔英玉, 前揭書, p.666-667.
- 26) 被服文化協會編, op. cit, pp.87-88.
- 27) 李正玉, 前揭書, p.236.
- 28) 정홍숙, 西洋服飾文化史, p.212.
- 29) 李正玉, 前揭書, pp.360-361.
- 30) Grès,G. Toudouze: Le costume Français, p.115 (paris, 1945).
- 31) 李正玉, 前揭書, p.199.
- 3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489.
- 33) 정홍숙, 前揭書, p.337.
- 34) Blanche Payne, op. cit., p.355.
- 35) 金敎玉, "17세기 Baroque 시대의 女子服飾" (서울: 건국한국연구원 학술지, 1996), pp.450-451.
- 36)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 문화사」, 교문사, p.284.
- 37) 李正玉, 前揭書, p.192.
- 38) 被服文化協會編, 前揭書, pp.87-88.
- 39) Blanche Payne, op. cit, p.355.
- 40) 유희경, 前揭書, p.485.
- 41) 유희경 외, 前揭書, p.296.
- 42) 유희경·김문자, 前揭書, p.294.
- 43) 유희경·김문자, 前揭書, p.296